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동향

김혜림
(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김지원(2000)과 유명우(2000)에 따르면 서양의 번역학¹⁾은 신생학문으로서 번역을 둘러싼 논의가 비교문학이나 언어학의 하위부류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자체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서양의 번역학이 인접 학문의 하위부류로 출발하였다가 후에 독립해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한다면 국내 번역학은 어떠한가? 국내 번역학 연구를 자생적인 학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서양에 뿌리를 둔 수입학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존 주장을 살펴보면, 김지원(2000), 유명우(2000), 김정우(2008)는

1)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에 따르면 번역학은 인문학 하위분야로 ‘통역번역’, ‘통역’, ‘번역’으로 구분된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번역학은 한국연구재단 분류에 따라 통번역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수입학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영훈(2013)은 한국 번역학의 전사(前史)로서 역학(譯學)을 소개하고 있으나 역학이 통번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담론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반면 국내 번역학 연구가 서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번역학이 서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한국의 번역학을 서구 번역학의 수용 결과라 여겼던 김정우(2008)는 한국의 번역학 관련 연구 성과가 국외에 비해 더욱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번역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두드러지게 일어난 시점을 1990년대 말이라 주장한다. 실제 국내에선 1998년에 한국통역번역학회가 1999년에 한국번역학회가 창립되어 번역학 자체의 독자적인 학술논의의 장을 열었다.

학문적 성취가 학술저널을 통해 수렴되고 공유된다는 일반론에 입각해서 볼 때,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출범한 한국통역번역학회와 한국번역학회의 연구 활동을 독립 학문으로서의 국내 번역학 연구의 출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역번역학회는 1998년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란 명칭으로 통번역 실무자들에 의해 창립되어 1999년 제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학술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이 창간되었고 이는 2008년에 『통역과 번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학회명도 한국통역번역학회로 바꾸었다. 한국번역학회는 1999년에 창립되어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 학술지 『번역학연구』를 발행하고 있다.²⁾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한국통역번역학회와 창립 15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한국번역학회는 각각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바, 학회 차원의 학술지 발간을 한국 번역학의 제도적 확립의 기점으로 보고(이영훈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학술지의 수록 논문을 통해 199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당대 한국 번역학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목적에 당대 한국 번역학 연구의 동향 파악에 두고 일차적으로 지난 14년간 한국 번역학은 어떠한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다루어왔는가를 분

2) 그 외에도 개별 대학 내 통번역 관련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번역학연구』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에서 발간하는 『T&I Review』가 있으며 ‘교육’이라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발간되는 『통번역교육연구』가 있다.

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번역학의 분류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관련 연구를 토대로 기존연구에서 한계로 지적되었던 분류 틀을 보강함으로써 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분류 틀을 제시할 것이며 둘째, 1998년과 1999년에 학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함으로써 국내 통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통역과 번역(1999년 창간호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과 『번역학 연구(2000년 창간호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를 대상으로 개별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분석하여 통계처리를 통한 개별 분류 항목의 연구 비중을 살펴본 후, 셋째, 정량분석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당대 한국 번역학 연구 동향을 종합하고자 한다.

2. 분류 틀

이항(2011)은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에서 윌리엄스와 체스터먼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1997년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의 『통번역학연구』 수록 논문 총 193편을 분류하였다.

윌리엄스와 체스터먼(2006)의 분류체계는 번역학 연구 분야를 아래와 같이 총 12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 텍스트 분석과 번역(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 번역 품질 평가(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 장르별 번역(Genre Translation)
- 멀티미디어 번역(Multimedia Translation)
- 번역과 테크놀로지(Translation and Technology)
- 번역의 역사(Translation History)
- 번역 윤리(Translation Ethics)
- 술어 및 용어론(Terminology and Glossaries)
- 통역(Interpreting)
- 번역 과정(Translation Proecess)

번역 교육(Translation Training)

번역 직업론(Translation Profession)

윌리엄스와 체스터먼의 분류체계는 번역학의 제반 연구 분야를 연구 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구체적인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항(2011)의 분석 결과가 말해주듯이 통역의 경우 세분화시키지 않고 통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평가, 윤리, 역사 등 모든 분야를 ‘통역’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통역’ 항목이 12개 영역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12개 분야를 모두 연구 주제별로 구분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장르별 번역’의 경우에는 연구 주제와 상관없이 연구 대상이 어떤 장르에 속하느냐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 장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연구 주제인지에 따라 분류 주제 및 장르로 중복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 필자(김혜림, 2012)가 중국의 최근 번역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쉬쥘(許鈞) 외(2009)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주제별 분류 키워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번역사(특정시대, 특정 번역가 연구, 특정 작품 번역 소개 및 수용사 연구 등)

문학번역

번역이론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번역 연구(언어 비교)

문화번역 연구

번역비평

통번역교육

통역

이중어사전과 번역

번역실천

코피스 번역

기계번역

기타

상기와 같이 쉬쥘은 ‘기타’까지 포함하여 크게 13개 범주로 번역학의 연구

주제를 분류하였다. 쉬전은 ‘기타’ 항목을 따로 두어 본인이 제시한 주제에 따라 특정 범주로의 분류가 어렵고 비중이 소수 또는 적게 나타나는 주제 영역을 기타로 처리함으로써 기본 분류 체계 이외의 소수의 별도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틀을 고안하여 제시하였으나 쉬전의 분류 기준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문학번역과 같이 장르별 유형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윌리엄스와 체스터먼의 경우처럼 분류상 중복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둘째, 이론, 비평, 역사 등의 세부 분류기준을 갖고 있는 번역에 비해 통역과 관련된 연구를 모두 ‘통역’이라는 단일 주제로 뭉뚱그려 파악함으로써 ‘통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셋째, 교육의 경우는 통번역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등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넷째, 정치, 권력, 종교, 페미니즘 등과 관련한 번역이슈를 다룬 연구 성과를 ‘문화번역 연구’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서양의 번역학 연구가 80년대를 기점으로 문화주의로 전환한 전반적 흐름을 놓고 볼 때, 번역의 많은 문제들이 언어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는 과정의 문제이든 문화로부터 완전한 독립변수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보편성을 간과함으로써 어디까지 문화번역의 범주로 국한시킬 것인지 불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 같은 기존 분류 틀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기본 인식 하에 국내 번역 연구의 전반적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분석틀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본고의 연구대상인 통번역학 전반의 연구에 대해 통역과 번역 각각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번역학 연구를 통역과 번역으로 구분하고 통역과 번역 두 개 범주를 다시 11개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텍스트 분석과 통번역, 통번역 평가, 통번역과 테크놀로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번역, 통번역의 역사, 통번역 윤리, 술어 및 용어론, 통번역 과정, 통번역 교육, 통번역 직업론,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이 외에 장르별(유형별) 통번역, 언어, 연구방법론 이 세 개의 독립변수를 따로 두었

는데 이는 상기 11개 주제별 하위범주가 분류상 장르(유형), 언어, 연구방법론과 동일 층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르 또는 특정 언어가 특정 주제로 중복 분류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논문이 특정 주제를 특정 연구방법론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와 연구방법론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독립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국내 번역학 연구 동향 파악에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에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번역 관련 연구 논문의 경우 문학, 비문학, 미디어로의 장르별 분류기준을 따로 설정하였으며 통역 관련 연구 논문의 경우 회의, 동시, 순차, 커뮤니티로 통역 유형별 분류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외에 윌리엄스와 체스터먼, 쉬권의 분류체계와 달리 언어별 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언어별 분류기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주제별로만 구분을 시도했던 상기 연구와는 달리 연구방법론별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류기준으로는 사례분석, 문헌연구, 고찰연구, 기술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로 구분하였는바, 여기서 사례분석이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논문 모두를 포함하며 문헌연구란 문헌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방법론을 말하고 고찰연구는 통번역 시장의 상황, 커리큘럼, 통번역사 양성 제도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방법론을 지칭하며 기술연구란 기술론적 접근으로서의 방법론을 지칭한다. 조사연구에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분석을 다룬 논문이 해당되고 실험연구는 통번역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연구방법론을 말한다.

기준별 세부 내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번역학 분류 기준

구분	기준	세부 내용	
번역	1	텍스트 분석과 번역	원문이나 번역문 또는 기타 비교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 텍스트 간 비교/대조 연구
	2	번역 평가	평가, Quality Control, 비평, 감수 등
	3	번역과 테크놀로지	현지화, CAT, 번역보조도구, 코퍼스, 기계번역 등
	4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번역	언어정책, 언어비교 등

	5	번역의 역사	특정시대, 특정인에 대한 연구, 번역자의 배경 연구,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개별 번역물 연구 등	
	6	번역 윤리	젠더, 탈식민주의, 권력, 이데올로기, 충실성, 번역자 윤리 등	
	7	술어 및 용어론	술어,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 사전 등	
	8	번역 과정	실제 작업 및 장업장 연구, 사고 발화법, 역자 서문/후기, 역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	
	9	번역 교육	교육 관련 모든 연구	
	10	번역 직업론	번역사의 사회적 지위, 협회 관련 연구 등	
	11	기타	이론 또는 철학적 연구,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 등	
	통역	1	텍스트 분석과 통역	원문이나 통역문 각각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한 연구, 원문과 통역문의 비교/대조 연구
		2	통역 품질 평가	평가, Quality Control
		3	통역과 테크놀로지	통역보조도구, 통역장비, 기술의 발전 등
		4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역	언어정책, 언어비교 등
5		통역의 역사	특정시대, 특정인에 대한 연구, 통역사의 배경 연구,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개별 통역 연구 등	
6		통역 윤리	젠더, 탈식민주의, 권력, 이데올로기, 충실성, 통역자 윤리 등	
7		술어 및 용어론	술어, 전문용어, 데이터 베이스, 사전 등	
8		통역 과정	실제 작업 및 장업장 연구, 사고발화법, 통역사 인터뷰 등	
9		통역 교육	교육 관련 모든 연구	
10		통역 직업론	통역사의 사회적 지위, 협회 관련 연구 등	
11		기타	이론 연구,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 등	

〈표 2〉 번역학 분류 기준 : 독립변수

구 분		세부 내용
번역	장르별	문학(시,소설), 비문학(브로셔,공문), 미디어(자막,더빙)
통역	유형별	회의, 동시, 순차, 커뮤니티 등
통번역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다국어 등
	연구 방법론	사례분석, 문헌연구, 고찰연구, 기술연구, 실험연구 등

상기 <표 2>에서 보여지듯이 번역은 장르별, 언어별, 연구방법론별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통역은 유형별, 언어별, 연구방법론별 독립변수로 분류

함으로써 통역 및 번역 각각에 대해 ‘연구 주제’를 포함하여 4개의 범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분류 대상

사실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이외에도 국내에는 『통번역학연구』, 『T&I Review』, 『통번역교육연구』 등의 번역학 관련 전문학술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통역과 번역』 및 『번역학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가 학교 및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 주제를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상기 분류 기준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 논문을 모두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역과 번역』과 『번역학연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의 번역학 연구 동향을 밝히는데 있어 객관적, 중립적 기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학술지만을 분석의 기초로 삼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이 채택하고 있는 분류 대상은 『통역과 번역』에 발표된 1999년 창간호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273편의 논문과 『번역학 연구』에 발표된 2000년 창간호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총 410편의 논문으로 두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총 683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2.3 분류 작업

창간호로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에 발표되었던 총 683편의 논문을 <2.1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였으며 분류 작업은 아래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논문의 제목, 초록, 키워드에 기초하여 분류 기준 상 가장 적절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제목, 초록, 키워드로 분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용을 참고하여 가장 가까운 분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여러 분야에 중복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논문의 중심논조에 근거하여 분류하되, 여러 분야가 고루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를

모두 표기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셋째, 비고란에 연구대상 언어 및 연구 방법론을 명기하고 언어별, 연구방법론별 통계를 별도로 실시함으로 언어별, 연구방법론별 구분을 시도하였다.

넷째, 분류 기준 상 장르별 번역 및 유형별 통역 역시 별도 통계 처리함으로 통번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르 및 유형별 비중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분류에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분류 프로세스를 총 3회 진행하였다.³⁾

3. 결과 분석

정량분석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당대 한국 번역학 연구 동향을 종합하고자 하는바, 아래 3.1에서는 정량분석의 결과를 언급하고 3.2에서는 정량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3.1 정량분석

통역인가 번역인가라는 연구주제의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보면, 총 273편의 논문이 수록된 『통역과 번역』의 경우 번역 관련 논문이 156편으로 전체의 57.14%를 차지하였고 통역 관련 논문은 102편으로 37.36%였으며 통번역 관련 논문이 15편으로 5.49%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번역학연구』는 총 410편의 논문 가운데 번역 관련 연구가 380편으로 92.68%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역 관련 연구는 23편으로 5.61%, 통번역 관련 연구는 7편으로 1.71%의 비중을 보였다.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두 학회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번역 관련 논문이 536편으로 78.48%, 통역 관련 논문이 125편으로 18.30%, 통번역 관련 논문이 22편으로 3.22%를 차지한다.

3) 분류 시 영상번역은 자막으로, 코퍼스 기반 연구는 실험연구에 포함시켰음.

〈표 3〉 통역과 번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주제의 대분류

구분	논문수	번역	통역	통번역
통역과 번역	273	156 (57.14%)	102 (37.36%)	15 (5.49%)
번역학 연구	410	380 (92.68%)	23 (5.61%)	7 (1.71%)
총계	683	536 (78.48%)	125 (18.30%)	22 (3.22%)

연구 주제별 분류 결과를 보면, 전체 683편의 논문 가운데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Students in Translation Classes」(Young Ouk Lee, 『번역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3.8』)와 같이 주제가 중복되는 논문 총 11편⁴⁾을 감안하여 총 69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아래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주제별 분류

구분	텍스트 분석	평가	테크놀로지	언어학적 관점	역사	윤리	용어론	과정	교육	직업론	기타
통역과 번역	280 52 18.57%	41 14.64%	6 2.14%	26 9.29%	1 0.36%	12 4.29%	4 1.43%	24 8.57%	54 19.29%	13 4.64%	47 16.79%
번역학 연구	414 92 22.22%	25 6.04%	12 2.90%	75 18.12%	30 7.25%	35 8.45%	25 6.04%	5 1.21%	43 10.63%	13 3.14%	59 14.25%
총계	694 144 20.75%	66 9.51%	18 2.59%	101 14.55%	31 4.47%	47 6.77%	29 4.18%	29 4.18%	97 13.98%	26 3.75%	106 15.27%

주제별 분석 결과를 보면, 텍스트 분석 관련 논문이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에서 18.57%, 22.22%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번역학연구』에서는 언어학적 관점의 연구가 18.12%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통역과 번역』에서는 평가

4) 대부분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Students in Translation Classes」(Young Ouk Lee, 『번역학연구 제14권 제3호, 2013.8』)와 같이 평가와 교육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말뭉치에 기반한 한중 뉴스표제의 문장부호 번역 연구(황은하, 『번역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6』)과 같이 테크놀로지와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복되는 논문도 있다.

(14.64%)와 교육(19.2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논문의 경우는 주로 이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번역과 언어의 경제: 영화번역을 중심으로」(장민호, 『통역과 번역 vol.6 no.2(2004)』), 「동시통역의 관점에서 본 청중질의 특성 논의」(오미형, 『번역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6』) 등과 같이 소수의 예외적인 사례도 여기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번역 관련 연구 가운데 장르별 분류가 가능한 논문은 『통역과 번역』에서 55편, 『번역학연구』에서 119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총 174편의 논문 가운데 문학 관련 논문이 91편으로 52.30%를 비문학 관련 논문이 50편으로 28.74%를 자막과 더빙이 각각 31편(17.82%), 2편(1.15%)으로 나타났다.

〈표 5〉 번역 장르별 분류

구분		문학	비문학	자막	더빙
통역과 번역	55	31 (56.36%)	13 (23.64%)	9 (16.36%)	2 (3.64%)
번역학 연구	119	60 (50.42%)	37 (31.09%)	22 (18.49%)	0 (0.00%)
총계	174	91 (52.30%)	50 (28.74%)	31 (17.82%)	2 (1.15%)

통역 유형별 분류를 보면, 회의통역에 관한 연구가 총 61편(7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시통역에 관한 연구는 42편(68.85%), 순차통역에 관한 연구는 11편(18.03%), 커뮤니티 통역에 관한 연구가 17편(21.79%)로 나타났다.

〈표 6〉 통역 유형별 분류

구분		회의	동시	순차	모호	커뮤니티
통역과 번역	59	51 (86.44%)	35 (68.63%)	8 (15.69%)	8 (15.69%)	8 (13.56%)
번역학 연구	19	10 (52.63%)	7 (70.00%)	3 (30.00%)	0 (0.00%)	9 (47.37%)
총계	78	61 (78.21%)	42 (68.85%)	11 (18.03%)	8 (13.11%)	17 (21.79%)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에서는 전체 683편의 논문 가운데 아래 6편의 논문에서만 2가지의 방법론이 병행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어 총 689편의 논문을 분모로 각각의 비중을 산출하여 아래 <표 7>의 결과를 얻었다.

- 「번역능력의 구성요소: 원문어휘지식과 원문주제지식」⁵⁾ (김련희, 『통역과 번역 vol.8 no.2 (2006)』)
- 「법정신문에 사용되는 질문유형과 통역」⁶⁾ (이지은, 『통역과 번역 vol.13 no.2(2011)』)
- 「영어구사력 교육도구로서의 통역·번역」⁷⁾ (정호정, 『통역과 번역 (vol.13 no.2 (2011)』)
- 「영한 번역 메모리의 구조화 연구」⁸⁾(최승권, 『번역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9, 2013.6』)
- 「학부과정 번역수업에서의 피드백 방법에 따른 효과 및 학습자의 피드백 인식 비교」⁹⁾ (이미경 『번역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1.9』)
- 「비디오 게임에서의 유머 번역과 수용」¹⁰⁾ (이상빈, 『번역학연구 제12권 제3호, 2011.9』)

<표 7>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

구분	사례 분석	문헌 연구	고찰 연구	기술 연구	조사 연구	실험 연구	중복
통역과 번역	276 (33.33%)	15 (5.43%)	30 (10.87%)	78 (28.26%)	24 (8.70%)	37 (13.41%)	3
번역학연구	413 (55.45%)	2 (0.48%)	34 (8.23%)	88 (21.31%)	24 (5.81%)	36 (8.72%)	3
총계	689 (46.59%)	17 (2.47%)	64 (9.29%)	166 (24.09%)	48 (6.97%)	73 (10.67%)	6

- 5) ‘번역능력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단계에 있는 언어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원문 어휘지식과 원문 주제지식이 최종 번역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음.
- 6) 사례분석과 조사연구 병행.
- 7)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병행.
- 8) 사례분석과 실험연구 병행.
- 9)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병행.
- 10) 사례분석과 조사연구 병행.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이 총 321편, 46.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기술론적 방법론으로 총 166편, 24.09%이고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연구방법은 실험연구로 총 73편, 10.06%로 나타났다.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각각의 학술지에서 해당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약간의 편차가 보이나 사례분석, 기술론적 방법론, 실험연구 순으로 연구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는 추이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언어별 분류 결과를 보면, 전체 683편의 논문 가운데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이 총 222편으로 32.5%를 차지하였으며 영어가 334편, 48.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중국어가 26편으로 3.81%, 일어가 32편으로 4.69%, 불어가 24편으로 3.5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표 8>과 같다.

<표 8> 언어별 분류

구분	공통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어	아랍어	라틴어	외국어조합	다국어조합	기타
통역과 번역	273 40.66%	95 34.80%	15 5.49%	14 5.13%	14 5.13%	8 2.93%	1 0.37%	0 0.00%	4 1.47%	0 0.00%	8 2.93%	3 1.10%	0 0.00%
번역학 연구	410 27.07%	239 58.29%	11 2.68%	18 4.39%	10 2.44%	0 0.00%	0 0.00%	3 0.73%	1 0.24%	1 0.24%	3 0.73%	8 1.95%	5 1.22%
총계	683 32.50%	334 48.90%	26 3.81%	32 4.69%	24 3.51%	8 1.17%	1 0.15%	3 0.44%	5 0.73%	1 0.15%	11 1.61%	11 1.61%	5 0.73%

이를 다시 학술지별로 보면, 『통역과 번역』의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번역학연구』의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각의 편수차가 적어 영어를 제외하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언어와 한국어의 조합 이외에 일영, 영중, 중네덜란드어, 영불 등 외국어와 외국어의 조합에 대한 논문이 11편, 1.61%를 차지하였고 한영/한불, 한영/한러, 불영한, 영한불일 등 다국어 조합에 대한 논문이 11편, 1.61%로 나타났다.

언어별 분류에서 기타로 분류된 5편의 논문은 만주어, 구결, 언해, 중세국

어, 중국고전(도덕경)에 관한 연구로 언어별로는 한문, 만주어, 언해 관련 연구가 0.73%를 차지한다.¹¹⁾

3.2 정량적 분석 결과의 함의

앞선 정량분석 결과를 기초로 지난 15년간 한국의 번역학 연구 동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수렴된다.

첫째, 통역보다 번역 관련 연구가 훨씬 많이 시도되었다.

번역 관련 연구 논문이 통역 관련 연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번역과 통역의 연구가 대략 4:1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크게 1) 번역학 관련 연구진의 내부 구성비, 2) 연구 대상 텍스트에 대한 자료취득의 접근성 등의 영향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우선 연구진의 내부 구성비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통번역 실무자들에 의해 창립된 한국통역번역학회는 1998년 출범 당시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란 명칭으로 시작했으며 1999년 제1회 학술발표회에 이어 학술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을 창간하였다. 출범 당시 학회명이 ‘국제회의통역학회’였다는 점에서 당시 학회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가 국제회의 통역사 출신들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멤버 구성상의 특징으로 『번역학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역 관련 연구를 많이 발표할 수 있었지만 초기 멤버들의 활동만으로는 학회 활성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학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9년에는 ‘국제회의’를 빼고 학술지 명칭을 『통역과 번역』으로 바꾸었으며 1년 뒤 학회명까지 한국통역번역학회로 바꾸고 번역 관련 연구자의 내부 구성비를 높이고 있다.

『통역과 번역』에서 통역 관련 연구는 37.36%이고 통번역 관련 논문의 비중은 5.49%로 이 둘의 총합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42.86%로 나타났다. 이는 통번역 관련 연구까지 포함하여 번역 관련 연구만 94.39%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번역학연구』의 논문 구성비와 확실한 차이를 보이지만 두 학회지를 통틀어 번역 관련 연구는 80% 수준으로 통역보다 4배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번역학회는 전국의 어문학 계열 연구진이 주축을 이루고 소수 통번역

11) 한문 3편, 만주어 1편, 언해번역 1편.

대학원 출신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학회답게 『번역학연구』에서는 번역 관련 논문이 주로 발표되고 최근 들어 통역 관련 논문의 발표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한 가지 두 학회지를 통틀어 번역 관련 연구가 80% 정도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는 연구 대상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활자로 남아 오래 보관되기 때문에 번역물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통역은 통역과 더불어 소멸되고 통역 결과물을 녹음하였다 치더라도 정보의 공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실험연구나, 조사연구, 역사에 대한 문헌조사 이외에 텍스트 분석이나 통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쪽으로의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주제별 연구 경향을 살펴볼 때, 통역이나 번역 모두 텍스트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나 통역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평가의 순인 반면, 번역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다음으로 언어학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통역쪽 연구에서 교육과 평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평가 두 가지 주제 영역에 걸쳐 있는 논문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국내 연구 동향은 질(1992)이 분석한 서양의 연구 경향과도 일치한다.

번역쪽에서 텍스트 분석과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내 번역 연구의 경우, 텍스트를 넘어서는 차원으로의 시도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번역 관련 연구는 장르별로 보았을 때, 문학 관련 연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문학 전공 연구자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되며 특히 비교문학에서 번역 연구가 이루어졌던 전통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문학으로 분류되는 기술번역 관련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능주의 시각이나 기술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가 늘고 있다.

넷째, 통역 관련 연구는 통역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회의통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서 커뮤니티 통역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회의통역 가운데는 순차통역보다 동시통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학회지별로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통역과 번역』은 회의통역과

커뮤니티 통역 관련 연구 비중이 51편 대비 8편으로 회의통역 쪽으로 편중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번역학연구』에서는 회의통역과 커뮤니티통역 연구가 각각 10편 대비 9편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통역과 번역』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주로 통역사 출신으로 통번역대학원의 교육 담당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정통역 및 의료통역,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주민을 위한 통역 등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는 사례분석이 절반 정도로 번역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연구방법임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주제별 분류에서 텍스트 분석이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동일선상에서 설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텍스트 차원의 대조 혹은 비교, 언어 차원의 대조 혹은 비교를 위해 사례분석 방법이 많이 활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기술론적 연구방법론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역을 위해서 실험연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바, 이로써 한국의 번역학 연구는 사례분석과 실증주의적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언어별로는 영어 관련 논문이 절반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중국어, 일본어, 불어가 3~4%대의 점유율을 보인다. 이는 국내 번역학 연구가 특정 언어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특히 모든 언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논문의 비중이 32.5%에 불과한데 비해 영어 관련 논문 비중은 48.9%나 되어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복합적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나오는 말

국내 번역학 관련 전문학회가 출범한지 15년간 한국에서는 양대 학술지 『통역과 번역』 및 『번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본고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당대 한국 번역학 연구의 동향 파악에 연구목적을 두고 지난 15년간 한국 번역학은 어떠한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다루어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새로운 번역학 분류 틀을 제시하였으며 2) 『통역과 번역』과 『번역학 연구』를 대상으로 개별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을 분석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하고 3) 정량분석에 기초한 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당대 한국 번역학 연구 동향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당대 번역학 연구 동향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1) 번역 관련 연구가 통역보다 4배 많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2) 주제별 연구 경향에서는 통번역 모두 텍스트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통역은 교육>텍스트 분석>평가의 순인 반면, 번역은 텍스트 분석>언어학적 관점에 대한 관심 순으로 나타났다.

3) 장르별 번역 관련 연구에서는 문학번역에 관한 연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형별 통역 관련 연구는 회의통역에 집중되어 있어 커뮤니티통역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연구방법론 차원에서는 한국의 번역학 연구가 사례분석과 실증주의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언어별 연구 비중에서는 영어 관련 논문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한 복합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필자는 국내에 번역학 연구를 위한 학회가 생겨나고 전문 학술지가 발간된 지 15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그간의 학문적 성과를 종합하고 연구 동향을 개괄하는 것이야말로 지난 15년 동안 다학제적 연구방법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온 번역학의 학문성과를 종합하고 앞으로 번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분류 틀이 엄밀한 구분을 하기에 적잖은 한계점이 있으며 정량적 분석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성적 평가가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 자체는 당대 한국의 번역학 연구 동향을 일괄하는데 유용한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 관련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지원 (2000) 「번역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55-75.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정우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혜림 외 옮김(2011) 『중국 번역사상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王秉欽 (2004)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 김혜림 (2012)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3(4): 29-54.
- 김효중 (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 김효중 (2000) 「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 33-57.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유명우 (2002)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試論)」, 『번역학연구』 3(1): 9-38.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341-362.
- 정연일 (2005) 「최근의 번역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 고찰」,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9: 98-116.
- 정연일 역(2006) 『번역학 연구의 길잡이』, 서울: (주)이지북스. (Wiliam, J. & Chesterman, A.(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St. Jerome)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 1999년 이후 국내의 대표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최지영 (2005) 「중국 통역번역 연구의 발전 과정과 현황-개혁 개방 이후 통역 번역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14: 349-368.
- 최희섭 (2007)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345.

허지운 외 옮김, 김혜림 감수 (2010) 『번역학 발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Snell-Hornb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Gile, D. (1992) 'Basic Theoretical Components in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C. Dollerup & A. Loddegaard(eds.) (1992)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85-194.

許鈞, 穆雷 (2009) 『中國翻譯研究(1949-2009)』, 上海:上海外語教育出版社.

『통역과 번역』 vol.1(창간호) ~ vol.15 no.1

『번역학 연구』 제1권 제1호 ~ 제14권 제2호

[Abstract]

**Trends in Contemporary Research on
Translation Studies in Korea(1999-2013)**

Kim, Hyerim

(Ewha Womans University)

In Korea, Translation Studies(TS) began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in the 1990s. The foun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1998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in 1999 opened an academic forum for TS, distancing themselves from comparative literature and linguistics.

This year marks the 1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and the 14th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These two academic societies publish “Conferenc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respectively. As the launching of these academic journals mark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S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se two journals to identify contemporary research trends in TS of Korea: first, the current study presented a new framework for classifying TS; second,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topics and methodologies of individual papers carried by the two publications; third,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was interprete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1) research papers on translation outnumbered interpreting by four times; 2) both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research papers demonstrated relatively strong interest in text analysis; in interpretation research, the most frequent research topics were found to be education, text analysis and assessment in this order, while in translation text analysis was the

dominant theme, followed by linguistic analysis; 3) by genre, literary transla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actively researched area; 4) in interpretation research, the majority of research was being done on conference interpretation, resulting in the dearth of research on community interpretation; 5)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cas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represented the majority of research work; and 6) by language, translation of English accounted for the half of all papers reviewed, pointing to the need to diversify the language combinations to be studied.

The current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its classification framework was not been tested rigorously. However, the study presented a useful tool for putting contemporary TS research in Korea in perspective, and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follow in this direction.

▶ Key Words: Translation Studies, academic journals, institutionalization,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김혜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hyerim@ewha.ac.kr

관심분야: 통번역이론, 통번역교육, 대조언어학, 연구방법론

논문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2일